

## 환경친화적 완충포장 연구

16년 깊이있는 경험살려

성도영 / 삼성전자(주) 포장연구소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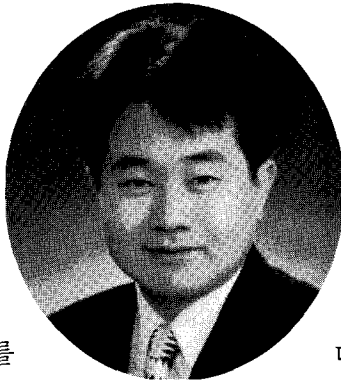
**연**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자체 뿐 아니라 포장용 완충제까지도 환경친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삼성전자 포장연구소는 발포폴리스틸렌(EPS)의 사용을 줄이고자 골판지나 제지를 완충포장제로 대체하려는 연구가 한창이다.

여기에는 16년간 완충포장에만 전념하며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는 성도영 과장이 한 몫을 하고 있다.

포장연구소 성도영 과장은 84년 삼성전자 포장연구소에 입사하여 줄곧 포장연구에만 매달렸으며, 85년에는 포장관리사 자격증을 취득, 현재 환경 친화적인 완충포장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도영 과장은 “제가 처음 삼성전자에 입사할 때만 해도 포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포장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라며 “그렇게 입사하여 포장을 16여년 동안



연구했지만 아직도 포장이라는 것에 대해 감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넓고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라며 겸손함을 보여주었다.

85년 당시 우리나라는 포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연구원과 자료 또한 부족한 때였다. 이러한 때 미국 RAYMAND사와 포장 기술 용역을 맺어 기술을 배우고, 외국의 자료를 보며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 낸 성도영 과장은 EPS완충재 특성 커브와 EPS진동 특성 커브를 국내 처음으로 제작해 완충포장의 기초를 다졌다.

“그 당시 선진국에서는 완충포장이 상당히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외국 자료를 구해 읽었습니다. 간혹 이해가 되지 않는 자료도 있어 그것이 다 이해가 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했었습니다. 한번은 미국 슈네만(완충포장엔지니어)박사의 세미나 강의를 듣고 내용이 가슴에 와 닿더군요. 그 뒤 제 자신에 도전을 받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한 끝에 완충포장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며 아직

## 새로운 것에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포장인으로 인도

도 기억에 생생하다고 회상했다.

성도영 과장은 '실천하며 살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말뿐이 아닌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고 한다.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뿐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먼저가 아닌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며 삶의 의지를 표명했다.

낚시를 좋아하는 성도영 과장은 바쁜 시간 속에서도 삶의 여유를 갖고 나름대로 취미생활을 즐기며 산다고 한다.

성도영 과장은 지금까지는 포장은 포장대로, 물류는 물류대로 나뉘어서 다루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포장과 물류를 하나로 묶어 혁신 방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피력했다.

성도영 과장은 "일본의 완충포장 형태를 보면 섬세하고 깔끔하게 처리 돼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 포장 형태는 아직 미흡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포장기술을 배우려고 했지만 앞으로는 일본을 따라 잡겠다는 생각으로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라며 우리

나라 포장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성도영 과장은 "포장을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돕고, 서로의 교류를 통해 많은 정보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포장을 연구하는 사람끼리 하나로 뭉쳐 힘쓸 때 더욱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라며 피력했다.

인터뷰 내내 편안하고 밝은 웃음을 보여주었던 성도영 과장의 모습처럼 2001년도 밝게 빛나기를 기대해본다. ☺

권해진 기자

### 기술원고를 모집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 (02)835-9041